

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을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이며, 국회와 법률의 통제 하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9.3. 파이낸셜뉴스는 「미래대응기금의 세 가지 오류」 사설에서
- ❶ 미래보다 ‘현재’, ❷ 대응보다 ‘선심’, ❸ 기금이 ‘쌈짓돈’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①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입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은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달리, 잠재성장을 제고의 핵심 축인 ❶ 청년, ❷ 성장동력, ❸ 지방, ❹ 교육·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. '27년 투자규모는 45.4조원 수준입니다.
-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시기는 정치적 임기가 아닌 ‘AI 대전환의 골든타임’에 맞춘 것입니다.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2~3년은 우리 경제·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인 만큼,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.
-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저출산, 양극화, 지방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.

-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❶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프론티어급 AI 개발, 퍼지컬 AI, AI 데이터센터 등 ‘3대 메가프로젝트’, ❷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‘7대 SEED 기술*’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대규모 핵심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.

* SMR, 핵융합, 재생에너지, 양자, 우주·항공, 첨단바이오, 첨단공급망

-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된 **농어촌 기본소득, 청년 일자리·주거·자산형성·혼인·출산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** 등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·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.

②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세수가 감소했을 때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.
 - '27년 200조원 이상 증가한 총수입을 모두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모두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,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.
 - “더 벌면 더 쓰고, 덜 벌면 덜 쓰는” 과거의 재정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, 호황기 증가한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였다가 불황기 세수 둔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여력을 보강한다면 재정을 기존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'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162.3조원 중 ❶ 미래 대응투자에 45.4조원, ❷ 신규 국채발행 물량 축소에 12.5조원 사용하고, ❸ 나머지 104.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유망자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.

③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과 동일하게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통제를 받습니다.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지출규모는 물론, 개별사업별 지출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, 국회의 사전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기금의 운용이 가능합니다.

- 기금 자체변경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-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·계정성 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, 사업지출 규모(45.4조원)보다 재정안정성·건전성 제고(국채상환 12.5조원, 여유자금 104.4조원)를 위해 활용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기금 자체변경 요건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%로 설정하였습니다.
 -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다른 기금에 비해 보다 강화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- 또한,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결산심사, 감사원의 감사, 기금운용평가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습니다.
- 아울러, 기획예산처는 전문가,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·결정하는 등 기금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	단 장	박성훈 (044-214-23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
